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8. 6. 7.(목)

<b>책 임 자</b>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권 주 성 (044-200-2190)	<b>담 당 자</b>	김 지 현 사무관 (044-200-2192)
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과장 장 도 환 (044-215-7630)		이 상 윤 사무관 (044-215-7636)
	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김 병 준 (02-2100-7716)		박 은 경 사무관 (02-2100-7715)
	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 창 완 (02-2110-3661)		신 동 환 검사 / 최 초 사무관 (02-2110-3668, 4244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 조 수 정 (044-203-4870)		박 근 형 사무관 (044-203-4873)
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윤 상 기 (02-2100-2910)		홍 수 정 사무관 (02-2100-2913)

## 제 목 : 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

- 다야니(이란)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(M&A) 과정(2010년)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-이란 투자보장협정(BIT\*)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,

\* BIT : Bilateral Investment Treaty

- 2015.9.14일,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\*)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(약 935억원 상당, 이자 포함)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.

\* UNCITRAL :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

- 동 件과 관련, 2018.6.6일 중재판정부는 캄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.

\* ISD : 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

-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\*('18.6.7일,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, 관계부처 국장회의)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.

\* 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법무부, 산업부, 금융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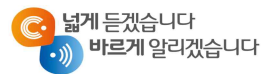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(영국중재법)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.

< 첨부 >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① 사건 내용**

- ① '00.1월, 부실채권정리기금(캠코)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 (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) 부실채권 인수
  -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채권 중 일부 출자전환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보유
- ② '05년~'08년, 제1차·제2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진행
- ③ '09.11월, 제3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추진(주채권은행: 우리은행)
  - '10.4월, 채권단은 엔텍합\*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 \* 다야니家が 대주주인 이란 가전 회사
- ④ '10.11월, 채권단과 D&A(다야니家が 설립한 싱가포르 SPC)는 매매계약 체결 (총 매매대금: 5,778억원)
  - D&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
- ⑤ '10.12월, 채권단은 투자확약서(LOC) 불충분(총 필요자금 대비 1,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)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 통보
- ⑥ '11.6월, D&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·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
  - '12.2월,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
- ⑦ '15.9.14일, 다야니家の 중재신청서 접수

## ② 소송수행과정

- ① '15.9.14일, 이란의 다야니家は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(578억원) 등의 반환을 한-이란 투자협정을 근거로 청구하는 ISD(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) 제기
- ② '15.9.22일, 관계부처(국조실, 기재부, 외교부, 법무부, 산업부, 금융위) 합동 대응체계 구축

◆ (관계부처 협의체) 국조실장 주재, 관계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, 중요 의사결정 담당  
◆ (분쟁대응단)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,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, 실무 전담

- ③ '15.10.6일, 관계부처 협의체 의결로 정부측 정부대리로펌 선정

◆ (정부측)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(영국) 및 법무법인 율촌  
◆ (다야니측) Derains & Gharavi(프랑스) 및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(이란)

- ④ '15.11.26일, 중재판정부 구성

중재인	성명(나이, 국적)	경력
의장중재인	Bernard Hanotiau (68, 벨기에)	• 벨기에 Louvain 대학교 교수 • Hanotiau & van den Berg 변호사
정부측 중재인	Gavan Griffith (74, 호주)	• Essex Court Chambers(영국), Owen Dixon Chambers(호주) 변호사
다야니측 중재인	Philippe Pinsolle (50, 프랑스/스위스)	• Quinn Emanuel Urquhart & Sullivan (미국) 파리사무소 대표변호사

- ⑤ '16.3월~'17.2월, 양측 당사자 1·2차 서면 제출
- ⑥ '17.5.8일~5.12일, 심리(Hearing) 진행
- ⑦ '17.7월~'17.10월, 정리 서면 및 비용 내역 제출
- ⑧ '18.6월, 중재판정